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1호 HYUNBULNEWS.COM 2026년 8월 26일(음력 7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더욱 풍성해진 국중박 분장놀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8월 14일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의 본선 진출작 50팀을 발표했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우리 문화유산을 분장과 의상, 퍼포먼스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국민 참여형 국립박물관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참가작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선발된 50팀은 오는 9월 지역 본선과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결선을 통해 대상 등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 사진 왼쪽부터 본선 진출작 청동공양탑, 부처, 반가사유상, 부처, 중흥사지 쌍사자 석등. **글=신중일 기자 ·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중생 편안하게 하는 수행자 되길"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오는 8월 27일(음력 7월 15일) 병오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려 중생 교화에 매진하는 수행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종문(宗門)의 수행자들이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온 국토의 경사요 만 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고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종사는 이어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을 향해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는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투쟁이 견고한 세상에는 어떤 방편을 보일 수 있으며, 가뭄과 더위와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수행을 점검하고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오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5개 선원(총림선원 5곳, 비구선원 61곳, 비구니선원 29곳)에서 총 1738명(총림선원 199명, 비구선원 1041명, 비구니선원 49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내영 기자

38대 집행부, 불교 미래 설계해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⑤ 차기 집행부 과제

전통사찰 · 문화유산 규제 개선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마련
미래세대 · AI시대 포교 전략

특별취재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2번 정념 스님,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종단 발전과 중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종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 후보가 중점 종책으로 제시한 교구자치 실현과 승가복지 구축,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 외에 38대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전통사찰 규제 개선

차기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는 전통사찰을 둘러싼 각종 행정 규제 개선이다.

현재 상당수 전통사찰은 실제 경내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전각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법 해석이나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

차기 집행부는 개별 사찰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전통사찰 경내지 건축물의 종교 목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기준을 마련하고, 지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사찰 지원과 문화유산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급증한 사찰 방문객에 대한 대책도 과제다. 방문객 증가로 발생하는 주차·화장실·안전관리 등 공공 서비스 부담을 사찰이 상당 부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방문객 규모를 반영한 보전금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문화유산 보수 예산 축소로 국보·보물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정비 예산 확대와 비지정 문화유산 지원 조례 제정 등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출가 감소 · 승가 고령화

승가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도 주요 과제다. 승가복지는 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전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가 초기의 교육에서 수행, 주거, 의료, 노후와 요양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 마련이 요청된다.

관건은 재원이다. 수행비 지급과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앙종단과 교구본사의 재정 구조를 함께 살피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출가정책도 복지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7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소년출가제도와 단기출가학교, 종립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최근 젊은 출가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장기 출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단기출가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출가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미래세대 포교

저출생과 탈종교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청소년 포교는 선택이 아니라 종단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학교와 대학, 청년공간, 지역사찰,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맞춤형 포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불교를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포교 방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중앙종단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찰이 지역 여건에 맞는 포교를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중앙은 기획·지원·평가를 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포교 전략도 시급하다. 불교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신행·명상·교육·상담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불교적 관점에서의 AI 윤리 논의도 종단 차원에서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3면에서 이어짐〉

총무원장 선거 후보 전원 '자격 이상 無'

조계종 중앙선관위, 8월 19일 만장일치 결정

경우 · 정념 스님, 규탄 성명
진우 스님 "비방에 강력 대응"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스님, 정념 스님, 진우 스님(기호순)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4차 회의를 열고 경우·정념·진우 스님의 입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위원장 태성 스님은 "후보자의 신원조회는 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총무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고, 세 분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심사 결정에는 후보 간 반응이 엇갈렸다. 경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세간에 의혹이 제기됐다면 허위임을 명백히 밝혀 대중의 혼란을 막거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간과 조직은 운영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은폐하기보다 정직하게 재평가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불교 종단의 본분"이라고 촉구했다.

정념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관위는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한 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심사는 검증 기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이자 종도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짓밟은 폭거"라고 힐난했다.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진우 스님 선대위는 "선관위 심사 결과는 진우 스님의 승적에 이상이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우 스님의 승적을 문제 삼는 행위는 중앙선관위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것으로, 후보 스님에 대한 흑색선전에 강력하게 대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어 전문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1
경우스님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습니다

수행과 전법,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종단을 세워,
조계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수행 지원 체계 확대, 시대정신으로 거듭나는 수행가풍
2 종단 도약의 초석, 교구 중심제 실현
3 디지털 대전환으로 미래형 종단 구현
4 콘텐츠로 빛나는 K-불교문화 르네상스 실현
5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불교 구현
6 수행과 전법의 주역, 당당한 비구니 승가
7 청년은 꿈꾸고 불교는 세계로 'K-불교의 비상'
8 현장 중심의 전법체계 구축
9 평생 수행의 버팀목 승가복지 강화
10 당당한 불교로 국가와 사회 잇는 상생 모색

